

“상생과 화합의 길 찾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느덧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업계를 위해 보내주신 적극적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甲午年) 새해는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융기관과의 불공정거래관행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8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함으로써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부감법 개정시에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안이었던 보수기준 준수 의무가 드디어 법제화되었고, 시·도지사 추천업무가 정립되었으며, 전문가 교육·연수제도 및 실무수습 교육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보수기준상 기본수수료 및 여비도 다소나마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매진하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 많은 위기와 변수들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올해도 역시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체감정 등으로 인한 평가시장 축소 및 여타 자격사와의 치열한 업역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내적으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김 태 환

부감법 개정 문제 등 슬기롭게 헤쳐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업계를 상대로 한 IFRS 관련 2심 소송에서는 1심과 달리 회계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감정평가업무는 우리의 업무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에 발의된 「부감법」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에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업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부감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한편,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응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며, 이 사안은 우리 업계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제한경쟁입찰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난항이 잘 해결되도록, 저의 잔여임기 내에 기본 가닥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개인의 생각 및 눈앞의 이익보다,

업계 전체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상생과 화합을 위한 길을 찾고자 노력해 간다면 2014년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업계의 구심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갑오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베풀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월 2일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김 태 환